

육종성 변화를 보인 간세포암 1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허규관*, 김병상·김혜순·곽진호·손수호·황계석·강영우·허정욱·안성훈·박승국

상피세포성 신생물의 육종성 변화는 신장의 선암, 식도나 폐 혹은 유방의 편평 상피암등 여러기관에서 나타나는데 간세포암의 육종성 변화는 그 빈도가 비교적 드문 것으로 되어있다. 간의 악성 종양에서 간세포암과 육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간세포암에서 육종성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혹은 간세포암과 육종성암이 동시에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조직학적 소견은 대개 방추상이고 다핵형 거대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간세포암과 비교시 발생 당시 성별이나 나이, 증상 그리고 예후등은 두 악성종양이 유사하나 간세포암의 종양 표식자인 α -FP이 낮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는 주로 수술이 원칙이고 간동맥색전술도 치료에 이용된다.

저자 등은 육종성암이 동반된 간세포암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 례>

58세 여자환자가 전신쇠약감과 체중감소를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과거력상 B형 간염에 의한 피사성 간경변 진단받고 주기적으로 외래 관찰 중이었다. 내원후 시행한 진찰 소견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검사실 소견상 총 빌리루빈이 0.5mg/dl, AST와 ALT는 각각 34IU/L, 26IU/L로 정상범위였고 α -FP도 7.14ng/dl로 정상범위였다. 복부 단층 촬영상에서 간 우엽의 6번 분엽에 3×4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혈관조영술상 파소 혈관상이 보였고 α -FP이 정상치여서 변연부에 위치한 간내 담관암으로 생각하고 수술(enucleation)을 시행하여 종괴를 제거하였다. 수술 소견상 6.0×4.0×3.8cm 크기의 피사조직을 가진 둥근 피낭성 종괴가 관찰 되었으나 원격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조직학적 검사상 동양혈관을 사이에 두고 지주형태, 가선형태 혹은 포상형태를 이루면서 α -FP 과 Cytokeratin이 염색되는 간세포암 부분과 다양한 모양의 방추세포가 군집 또는 회오리 모양을 나타내며 Cytokeratin 과 Vimentine에 염색되는 육종성암의 부위를 동시에 가진 종괴로 판명되었다. 이 두 부위는 이행대(transitional zone)를 사이에 두고 존재하였다.

수술후 환자는 퇴원후 1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정기적인 경과 관찰 중이다.

간의 원발성 편평상피세포암 1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남진*, 유상두, 민상운, 김태연, 이완식, 서영호, 주영은, 서강석, 김현수, 유종선, 김세종

원발성 간 편평상피암은 매우 드문 간의 악성종양의 하나로 1934년 Imai가 간 기형종에서 발생한 것을 보고한 이후로 국외적으로 약 20례의 보고가 있다. 이중 약 10례에서 간 낭종에서 기원하였고 10여례가 간기형종, 간내 담석증과 동반되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1992년 김등에의해 간내담석증, 간흡충증과 유관한 4례의 보고가 있다. 원발성 간 편평상피암은 수술적 절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아주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고된 모든 중례에서 1년이상 생존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저자 등은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73세 여자환자에서 원발성 편평상피 세포암을 진단하고 간좌엽 절제한 6개월만에 다발성 복강내 전이가 있어 사망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73세 여자환자가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과 가족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환자는 4개월전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오다가 내원 10여일전부터 동통이 심해지고 상복부에서 종괴가 촉진되어 본원에 입원하였다. 식욕부진, 소화불량과 3개월간의 10 Kg의 체중감소가 있었다. 신체검사에 길박의 빈혈과 상복부에 경도의 압통을 동반한 약 10 cm 크기의 종괴가 만져졌고 그 이외의 특이소견은 없었다. 검사소견상 혈액색치가 8.8 g/dl이었으나 생화학 검사와 소변 및 대변검사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간염 바이러스 검사 및 암 표지자 검사도 정상범위내였다.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흉부 단순촬영상 우중엽에 선상의 음영이 관찰되었으나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간질성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복부 초음파 소견상 간 좌엽의구역(S2,S3)에 혼합에코를 나타내는 10 X 8.6 cm 크기의 종괴와 좌엽내전방부(S4)에 5 X 3.7 cm 크기의 아절절이 있었으며 담낭에도 약 1 cm크기의 담석이 있었다. 간내담관의 확장이나 간문부 임파관의 비대 또는 타잡기로의 전이는 없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과 자기공명촬영상에서도 초음파 소견과 유사하였다. 간 종괴는 중앙에 피사된 부분이 있고 주위 조영증강이 있었으며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편평상피 세포암을 진단하였다. 전이성 종양을 배제하기 위하여 후두경 검사, 상부 위장관내시경, 흉부 컴퓨터 전산화단층촬영, 자궁 경부암에 관한 검사등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환자는 담낭 절제술과 간좌엽임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여 외래관찰하던 중 4개월후 복벽과 복강내부의 다발성 전이병변이 확인되었다. 보존적인 치료중 간염절제술 6개월 후 사망하였다.